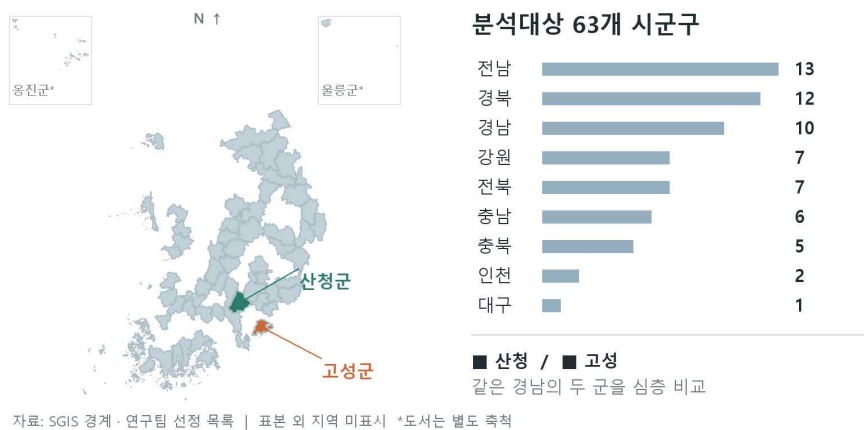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책 맥락: 2024년 전국 시·군·구의 57.0%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외부 방문자의 지역 내 체류·소비 확대가 필요함. 인구감소지역 체류 경험자 조사에서 판매시설(4.31점)과 숙박시설(4.14점)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 관광거점 주변의 숙박·상업시설 분포와 접근 여건 확인이 요구됨.
- 추진 목적: 2019~2025년 소멸위험지수 4·5단계에 해당하는 63개 지역(중북 제외)을 대상으로 방문·체류·소비 관련 요인을 분석함. SGIS 기반으로 고성·산청의 관광거점 주변 여건을 비교하여 지역별 관광성과 차이를 설명하고, 체류·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1] 분석대상 63개 시군구와 고성군·산청군의 위치



□ 추진과정

- 분석 흐름: SGIS OpenAPI 경계·코드에 관광데이터 랩·TourAPI를 결합함. 63곳 회귀→두 군 비교→12곳 유형 진단 순으로 진행함.

□ 추진내용

○ 63개 지역의 성과별 회귀분석

- 성과 지표: 방문 변화(Y1, 2022~2024년)와 체류·소비강도(Y2·Y3, 2025.12~2026.8)를 별도로 추정함.
- 추정 방법: 최단 교통거리·시설 등록 밀도(인구 1만 명당)를 표준화하고 로그 인구·시도 더미를 통제한 횡단면 OLS(HC3)를 적용함.

[그림 2] 성과별 회귀계수와 통계적 유의성



□ 추진성과: 성과별 연관 요인

- 방문 변화: 교통거리 음(-), 문화관광 등록 밀도 양(+의 유의한 연관성 확인함.
- 체류·소비: 숙박 등록 밀도 양(+의 연관성 확인함. 교통거리는 두 지표에서 유의하지 않음.

□ 추진성과: 고성·산청의 공간 비교

- 비교 기준: 고성·산청의 IC 거리 차이는 1.43km이나 산청의 체류·소비강도는 16.40점·22.30점 높음. 거점 1·3km 시설을 비교함.

[그림 3] SGIS 경계와 두 군의 주요 관광거점

경남 고성군



경남 산청군



[그림 4] 관광 성과와 거점 주변 등록시설 비교

관광 성과 지수



거점 1km 내 등록시설



거점 3km 내 숙박



시군구 전체 숙박 등록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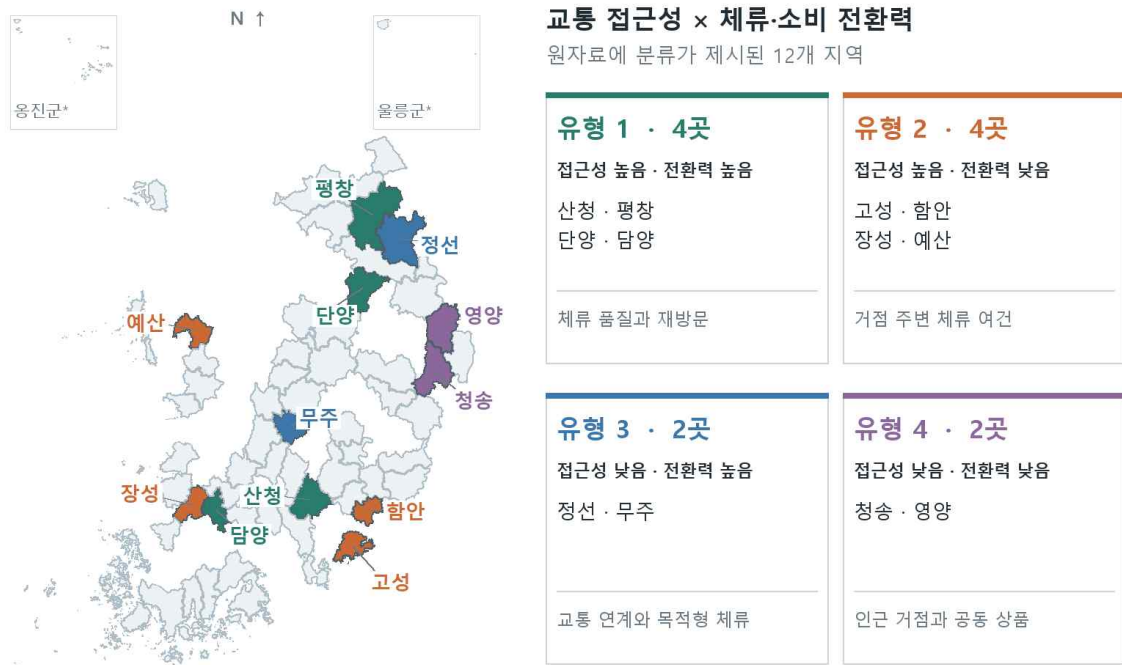
○ 핵심 차이: 고성군은 군 전체 숙박 등록 밀도가 높으나 당항포 1km 내 등록 숙박시설은 0곳임. 산청 동의보감촌은 2곳임.

○ 해석 범위: 등록시설 수에는 객실 · 영업상태가 반영되지 않음. 실제 이동시간이나 소비 유출을 입증하지 않음.

□ 추진성과: 유형별 공간 진단

- 진단 축: 교통거리의 접근성과 Y2·Y3 표준화 평균의 체류·소비 전환력을 조합함.
- 적용 범위: 확정된 유형 결과표의 12곳만 색칠함. 63곳 전체의 유형 분포로 일반화하지 않음.

[그림 5] 분류 결과가 있는 12개 지역의 위치와 2×2 진단



자료: SGIS 경계 · 연구팀 유형 결과표(12개 행) | *도서는 별도 축적 | 63개 전체 비중은 산출하지 않음

※ 분류 기준: 확정된 중위수 경계값을 사용함. 12개 행으로 경계값을 재추정하지 않음.

- 유형별 점검: ① 체류 품질 · 재방문 ② 거점 주변 체류 여건 ③ 교통 연계 ④ 인근 지역 공동 상품을 우선 검토함.
- 사례 연결: 고성 · 산청은 접근성 상위권이나 체류·소비 전환력과 거점 주변 시설이 달라 같은 처방을 적용하기 어려움.

□ 정책 제언 및 SGIS 활용 성과

○ 고성군: 기존 거점의 체류 연계 강화

- 당항포 · 상죽암 주변의 실제 영업시설, 가용 객실, 야간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숙박 · 식음 · 체험 연계상품을 시범 운영하고, 예약 실적과 거점 이용변화를 점검하는 방안을 제안함.

○ 산청군: 집적시설과 지역 상권의 연결

- 동의보감촌의 숙박 · 식음 · 체험을 하나로 묶는 통합 예약체계와 남사예담촌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수기 이용과 주민 상권 참여 수준도 함께 살펴야 함.

○ 성과 관리: 동일 기간 · 동일 기준의 비교

- 사업 전후 같은 계절의 방문 추세 · 체류 · 소비강도 · 거점 이용을 함께 비교함. 실제 이동 · 숙박 선택은 현장조사로 보완함.

○ SGIS 활용: 지역 총량에서 거점 진단으로 확장

- SGIS 경계 · 코드로 서로 다른 자료를 연결하고 표본 · 거점 · 유형 지도를 제시함. 이 절차는 다른 소멸위험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시 시설 기준일, 자료 누락, 분류 기준을 재확인해야 함.